광주·전남 주요대학 의약·보건계열 여전히 강세

2024학년도 수시모집 마감

전남대 의예 13.25대 1
조선대 치의예 17.5대 1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7.95대1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약·보건 계열학과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원예생명공학과 등 첨단신소재, 융·복합학과 경쟁률이 상승했고 반려동물학과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전남대는 "지난 15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890명 모집에 2만276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85대 1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전형(지역인재)에서 4.09대 1, 학생부 종합전형(고교생활우수자 유형Ⅰ·12명) 13.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생부 교과전형(일반)에서는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의 경쟁률이 22.4대 1로 가장 높았다. 학생부 교과전형(지역인재)에서는 원예생명공학과의 경쟁률이 25.6대 1로 가장 높게 형성됐다.

조선대는 모두 4303명 모집에 1만8997명이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부 교과전형(일반)에서는 의치약학과의 경쟁률이 높았다.치의예과 17.5대1, 약학과 14.4대 1, 의예과 13.7대1 순이었다.

학생부 교과전형(지역인재)에서는 약학과 16.0대1, 치의예과 7.5대1, 의예과는 6.9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부 종합전형(면접)에서는 약학과 27.8대1, 치의예과 20.8대1, 의예과 11.5 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대는 1375명 모집에 5683명이 지원해 평균 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원 내 전형(일반·지역학생)의 학부(과)별 경쟁률은 간호학과 7.88대 1, 호텔외식조리학과 6.55대 1, 뷰티미용학과 6.4대 1, 시각영상디자인학과 6.05대 1 순이었다.

신설 응급구조학과에는 37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해 4.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일반) 학과별 경쟁률에서는 간호학과가 8.29대 1로 가장 높았다.

호남대는 1632명 모집에 7296명이 지원해 평균 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가 38명 모집에 521명이 지원해 13.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간호학과 8.1대 1, 임상병리학과 7.93대 1, 치위생학과 7.2대 1 순이었다.

동신대는 1479명 모집에 498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 경쟁률 3.16대1보다 소폭 상승했다.

학생부 교과전형(일반)에서는 한의예과가 12명 모집에 261명이 지원해 21.7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려동물학과는 20명 모집에 159명이 지원해 7.95대1로, 한의예과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간호학과 6.89대 1, 방사선학과 6.88대1, 물리치료학과 6.82대 1 등 보건계열 경쟁률도 높게 형성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망월묘역 벌초 한창 추석을 10여일 앞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망월묘지공원에서 직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동학대 하루 1.7건

광주·전남 5년간 3배 증가

광주·전남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아동학대 건수는 644건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 하루에 1.7건 꼴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아동학대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광주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109건이었으나 147건(2019년)→156건(2020년)→262건(2021년)→293건(2022년)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2018년 127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해 351건으로 늘어 5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아동학대가 1만1970건이었고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67.5%로 가장 많았다. 정서학대(17.0%), 방임(6.3%), 중복(5.4%), 성학대(2.6%)순 이었다.

과실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는 15건, 아동을 살해한 사례는 8건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1만 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690명), 교원(645명), 보육교사(550명), 친인척(454명), 시설 종사자(149명)가 뒤를 이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비둘기 집단 폐사 왜?

광주 서구 풍암동 공원서 발견

광주 도심의 한 근린공원에서 비둘기 수 십마리가 폐사했다.

광주시 서구는 17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 일대에서 비둘기 21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원에 나들이 나온 주민이 비둘기 사체를 발견해 서구에 신고했다.

서구는 비둘기 사체를 수습하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 폐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서구는 고의적으로 집단 폐사시킨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비둘기는 분변이나 털 날림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 피해를 일으켜 지난 2009년 환경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포획·살처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철도 파업 4일간 호남선 열차 58%만 운행

21일 2차 파업 예고…추석 앞두고 교통·물류대란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열차 운행이 잇따라 중지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4일 시작한 파업은 18일 오전 9시에 종료되나, 노조가 21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교통·물류대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14~17일 4일 동안 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호남선·전라선·경전선에서 기존 666회 운행하던 열차를 394회만 운행했다고 밝혔다. 평시 대비 운행율은 59.1% 수준이었다.

KTX고속열차의 경우, 호남선(목포·광주송정역)에서는 평시 199회 중 120회(60.3%)만 운행했으며 전라선(여수엑스포역)에서도 평시 143회 중 실제 운행은 96회(67.1%)에 그쳤다.

일반 열차는 기존 호남선 144회, 전라선 120회, 경전선 60회씩 운행했으나 파업 기간 동안 호남선 80회(55.5%), 전라선 64회(53.3%), 경전선 34회(56.6%) 운행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동안 운행 중지될 예정이었던 KTX고속열차 25회를 운행 재개했으나, 모두 경부선이고 호남선·전라선에서는 추가 운행되지 않았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수서행 KTX투입 및 고속철도 통합, 호남선SRT 축소운영 철회,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열차(SRT) 노선 확대 철회, 철도민영화 중단, 4조 2교대 근무 체계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관계자는 "2차 파업에 돌입하면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전남·전북 조합원 1500여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1차 파업은 경고성에 그쳤지만 2차 파업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반성없는 학폭 가해자들…행정소송 잇단 기각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다른 가해 학생들과 함께 2022년 학교에서 샤워하던 피해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는 언어폭력, 오줌과 찬물을 끼얹는 신체적 폭력,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 등을 행하거나 동조·방관했다.

A군은 학폭위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촉·보복금지 등 처분을 받고 "처분 통보서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보고 웃으며 찬물을 뿌리는 등 행위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중학생 B군이 광주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B군은 2022년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

학폭위가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리자 우발적 사고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B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학생 C군이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신고 학생 보복행위 등 금지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C군은 과거 두 차례 친구와 장난치다 상대 학생과 폭력 사건을 일으킨 후 자체 종결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피해 학생과 쌍방 폭행 사건을 일으켜 학폭위에 넘겨졌다.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등을 받은 C군도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상대 학생에게도 같은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고, 상호 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접촉과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